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⑨

러시아 대표 울리아

“한국은 배울 것이 많은 나라예요”

러시아 사람들 한국에서 바르게 살아 자립기반 다져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에서 자란 울리아(30·사진)는 1999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고향에서 만난 한국인 목사를 따라 한국에 온 울리아는 2003년 장로교신학대학 대학원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러나 울리아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는 송우리문화센터에서 예배도 드리고 러시아 사람들을 전도도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현재 송우리문화센터를 찾는 러시아인들은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울리아는 한국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으며 현재 장로교신학대학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한국이 좋은 점에 대해 울리아는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꼽는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기회도 많다고 한다. 1993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고백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울리아는 무슬렘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신학대학이 3개 있는데 1개는 합법이고 2개는 불법인데 울리아는 불법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

결혼계획이 없다는 울리아는 사역을 하게 되면 립박도 예상되는데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울리아는 송우리문화센터를 찾는 러시아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다. 공장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 힘든 사람도 있다. 가족이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은 사람도 있다.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송우리문화센터 목사님께 이야기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울리아는 “사람처럼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송우리문화센터에 대해 울리아는 너무 잘해 줘서 고맙다고 한다. 특히 예배드릴 때 정말 좋다고 한다. 한국에 온 러시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울리아는 한국정부에 대해 고려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를 러시아인들에게도 적용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이보용 본지지원위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뿐더러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 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여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사랑]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시인의窓

바위를 깬 소나무

이희용(시인, (사)한국예총포천지부장)

봄은 겨울을 건너오고 있다
소나무는 차디찬 냉기를 이기고
긴 여름에서 깊은 사랑을 했으나
때를 기다려 땅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을 타고
신음소리 홀독한 별시를 견디고
꿈틀대는 나무는 삼척을 이기고 바위를 깬다.

나무는 위대하다
차가운 겨울의 사슬을 끊고
삶의 몸부림으로 다시 들고 일어나
목심으로 자신을 이겨낸 승리의 모습이다.

앞이 보이지 않던 수많은 세월들
나무는 가능성과 희망을 전하는 노래를
장엄하고 시원하게 부르고 있다.

죽엽산 가파른 비탈길에
겨울을 이긴 그 소나무
바위를 깨버리고 힘차게 자라 올라서
답답한 엄동 겨울에 쓰러진 울분들을 견디고
절규하듯 힘을 모아 모진세월을 쫓아낸
바위와의 처절한 싸움이었으리라

서두르지도 않았고 돌아가지도 않았고
오직 끝은 마음 굳게 지키며
운명을 다하여 한길을 걸었고
나무는 그래서 바위를 이겼다

긴 싸움을 이기고 힘차게 승전가 부르는
죽엽산 그 소나무
봄이 오면 더욱 높은 꿈을 향하여
힘차게 하늘 향해 뻗어 나가리라

긴 세월 꿈을 꾸며 향기 품고 일어나
거침없이 솟구쳐 오를 그 기상
한없이 통쾌하고 장엄한 파괴였다
고난을 겪고 서있는 용한 소나무
나무를 때리치는 숲살들의 환호한 미소
생사를 넘나들던 승리의 땀을 씻었다.

자신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를 이긴 소나무

<감상노트>

삶의 철리가 뒤틀린 폭아 있는 자연적 시가 아닌가 싶다.
소나무에서 그 깊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며, 바위에
서 그 사상적 웅변을 듣게 된다.그의 예술적 미학은 마치
달구어진 무쇠 같다.

내면에서 떠오르는 열정은 아름다운 불꽃이다.
가슴에는 맑은 개천이 흐르고 그의 살속에는 꽃들이
핀다.

안 익 수(시인)

이곳이 차도(車道)인가, 인도(人道)인가?

소홀한 송우리 송우웨딩홀~소홀한수종말처리장간 제방도로를 높이 후 1차선으로 아스콘 포장한 이후 출퇴근시간에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좁아 교행시에 많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방도로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하천이나 농경지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교행시 차량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2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양보없는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가중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무리하게 교행을 하던 유조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도로턱에 걸려 전도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운동시설로 이용 할 것인 지, 포화상태에 있는 43번 국도의 우회도로로 사용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가



지도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회도로로 사용하려면 제방 폭을 더 넓히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하려면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일(조사위원)

*용경자의 세상읽기 5

부족함

우리조카는 중학생인데 벌써 다이어트를 하느라 저녁이면 “이모 나 밥 한 주걱만 주세요.”하더니 오늘은 두부 한모판 먹고 밥은 안먹는다. 인터넷을 뒤져 다이어트 비법을 찾느라 바쁘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오늘날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이모가 보기에 통통하니 예쁘고 보기 좋은 모습인데 요즘은 통통하면 뱃시가 안나고 다들 살을 빼라고 하니 덩달아서 난리다. 비만이 남의 일은 아닌 듯 싶다. 내 주변에도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자주 듣고 병문안을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당뇨, 고혈압, 등등. 그럴 때마다 운동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왜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핑계거리는 많고 노력부족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 때나 시간만



내면 실컷 먹고 넘치게 마신다. 하지만 곱의 물도 넘치면 덜어내고 닭야채야 하듯이 우리 몸도 넘치면 살을 빼기 위해 너무 힘들다. 특히 우리 소중한 자녀가 넘치는 물 때문에 닭야채야 하는 번거로움은 겪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부족함은 성공한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열악한 환경과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정기가스킨이 탄생했고 정주영 같은 불굴의 의지도 역사 속에 영원히 공부하여 성공하려고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

나도 단물뿐인 우리아이가 항상 다른 아이에 비해 부족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넘쳐서 덜어내고 닭야채야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좀 부족해서 채우려 애쓰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아이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부족함이란 명약을 써 봐야겠다.

어버이날 표창 ‘가산孝子’

15년 동안 반신불수 老母 보살피

지난 15년 동안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양영관(34·사진)씨가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상을 받았다. 양씨는 포천시 가산면 가산2리 377-1번지에서 태어나 한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를 돌보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은 겪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부족함은 성공한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열악한 환경과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정기가스킨이 탄생했고 정주영 같은 불굴의 의지도 역사 속에 영원히 공부하여 성공하려고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

나도 단물뿐인 우리아이가 항상 다른 아이에 비해 부족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넘쳐서 덜어내고 닭야채야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좀 부족해서 채우려 애쓰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아이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부족함이란 명약을 써 봐야겠다.

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양 씨는 부지런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결혼에 대해 양 씨는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어요?”라며 “집안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오겠다고 하면 두 팔 벌리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다. 양 씨는 앞으로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불편한 것 없이 살아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양씨가 받은 효행상이 오늘날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세계 유명 모자업체가 인정하는 글로벌기업 주형산업

국내 우수 모자제조업체 납품중 미주시장을 비롯한 세계유명 모자업체 수출중 생산라인 자동화시스템(대량생산 가능)

■연혁■

- ▶1994년 : 주형산업 설립
- ▶1998년 : 모자형식 만곡선형 및 제조장치 특허 획득, 실용신안등록
- ▶2000년 : 방글라데시 현지공장 설립
- ▶2003년 : 중국 특허 획득,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 및 특허획득
- ▶2004년 : 베트남 단독투자 법인등록
- ▶2007년 : 베트남 국영공단(베트남/싱가폴공단)내 공장설립



창성



특허증



사옥

■본 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27-5 TEL : (031) 541-4420~1 FAX : (031) 541-9047
■베트남 법인 : VSIP 8 STREET, VSIP, BINH DUONG VIETNAM TEL : 84-650-788-821 FAX : 84-650-788-822

대표 배성호